



천천히 페달 밟는 것을 사랑하기

초소수의 사람을 위한 미래의 전망은 나머지 사람과는 다르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세포는 올바른 환경에 놓이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지 모른다. 데이터에 따르면, 수명이 짧은 동물의 뉴런을 수명이 긴 동물의 뉴런에 이식할 경우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상어는 약 500년을 사는데, 이는 상어의 뇌 안에 자신의 뉴런을 넣어 보존함으로써 기억이 퇴색하는 것을 방지하고 잠재적으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기 재창조를 하려는 미래의 엘리트에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자전거를 천천히 밟으며 클리프덴 주변의 언덕을 오르내리고, 해안으로 향하고, 불이 붙은 토탄(土炭)의 게루흐(Geruch, [독일어] 냄새)와 섞인 해초의 향을 맡는 걸 나는 좋아한다.

이제, 첫 번째 감쇠 조치를 가해본다.

나는 자전거를 천천히 밟으며 한때 클리프덴이었던 곳을 오르내리는 걸 좋아한다. 갑작스런 산사태를 피하기 위해 안전한 길을 따른다. 저 멀리 페르데(Pferde, [독일어] 말)이 보이는데, 그건 내 상상일지도 모른다. 술탄이 방문할 때를 위해 보관 중인 몇 마리를 제외하면, 말은 대부분 사라졌다. 토탄을 태운 불의 향기는 대단하지만, 불의 발원지가 어딘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술탄은 토탄의 냄새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두 번째 감쇠 조치를 가한다.

나는 여전히 천천히 자전거를 밟는 걸 좋아하고, 한때 클리프덴이었던 곳을 통과하며, 혹시 모를 산사태를 피하기 위해 안전한 경로로 이동한다. 바로 한 해 전, 술탄의 장기 기증자 가운데 하나가 산사태로 죽는 일이 있었다. 진흙 속에 너무 깊이 파묻히는 바람에 장기가 짓눌렸고, 뼈-골수만 남은 압착-쓰레기가 되고 말았다. 골수는 저렴해서, 관찮은 로봇 약국이라면 며칠 만에 즐기세포 수백만 개를 만들 수 있지만 완전히 배양된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몇 필요하다. 멀리서 말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건 그저 상상의 산물일 수 있다. 술탄이 방문할 때를 위해 보관 중인 몇 마리를 제외하면,



말은 대부분 없어져버렸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대체 왜일까? 그의 E-하우트(E-haut, [독일어] 전자-피부)는 말을 타기엔 너무 민감하다는 소문이 돈다. 토탄을 태운 불에 관해서라면, 그 냄새는 여전히 달콤하다. 영원의 호수 가장자리에 외로움의 굴뚝이 보인다. 어쩌면 경비병 가운데 하나가 진급을 했을지도, 벼-골수 덩어리에서 영원의 연못을 담당하는 전임 보호인으로 한 단계 올라섰을지도 모른다. 술탄은 토탄 냄새를 그리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호인을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 보호인은 무한한 유연성을 안겨주는 독특한 콜라겐 돌연변이임에도, 그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쩌면 바로 그것이 술탄을 기쁘게 하는 건지도 모른다.

이제, 네 번째 감쇠 조치를 취한다.

포 프라브데(По правде, [러시아어] 사실은), 나는 자전거 타는 걸 싫어한다. 터널은 무섭고 말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가련한 야망에 흠뻑 젖어 있는 이중-보호인이 경멸스럽다.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인생은 눈물을 담는 그릇이며, 모든 눈물은 깊은 영원의 연못(EP, Eternity Pond)을 향해 끝없이 흘러 들어간다. 나는 이곳, 클레간이라는 도시였던 곳에 있다. 어부, 관광객(tourist)들이 있던 곳. “관광-객(tour-ist)”이라니 정말 이상한 이름이 아닌가. 이제는 “관광-아니(tour-nix)”라고 부른다.



그 무엇도 이곳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EP를 제외하고는.
 며칠 전에는 술탄이 이곳에 왔다. 가장 수명이 긴 생명체라고 알려진
 그린란드상어를 보라. 술탄의 환관이 지닌 고환만한 뇌에 술탄으로부터
 이식한 기억 뉴런을 신경계에 통합한 채 수백 년을 산다. 쥐의 뇌에 이식된
 짧은 수명의 생쥐 뉴런은 쥐의 수명만큼 유지되는 반면, 두더지 쥐의 뇌에
 이식된 수명이 더 긴 쥐의 뉴런은 40년을 살 수 있다. 자, 이제 EP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음핵 모양을 한 상어 뇌 속에 든 술탄의 뉴런 수백만 개는
 영원한 젊음의 원천이자
 당신, 바로 전하, 술탄 전하의 순수한 본질의 원천이다.

다시 삶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면, 샤크 가디언(SG, Shark Guardian)이
 되어 EP에 머무르고 있다면 상어에게 축복을 비는 율법학자 물라의
 비명소리는 꽤나 인상적일 수 있다. SG는 모두 합쳐서 12명이 있고,
 WSG(Wives of the SG, SG의 아내) 36명과 WSG의 아이는 모두 미래의
 SG로서 면밀한 심사를 받는다. 새로운 세대는 성행위라는 폭력의 경험을
 물려받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 이바트(Ебат, [러시아어] 성교)해야 하기에
 여성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잊어버린다. 일상 생활에서는 WIBE에 접속해
 편안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보내거나 완전한 건조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완보동물(緩步動物)로 세상을 가득 채운다. 완보동물들은 캔자스의
 농장에 서식하며, 현지에 사는 바퀴벌레로 뒤덮인 원뿔 구조물 안에서
 번식하거나, 지평선을 향해 굴러가거나, 낡은 사일로에서 잠을 자거나,
 녹슨 자동차 차체에 코르텐 강철로 만든 번호판처럼 달라 붙는다.
 이 모든 건 태평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오버플라이 영역”을 따라 존재한다.
 청바지를 입지 않아도 되고 발굽이 뾰족한 부츠도 신지 않아도 되는 영토를
 따라 떠나는, 완보동물을 기르는 농부들의 땅-타파 랜드(TaFa land).

막대 사탕. 멕시코의 비(非) 국경이었던 곳에서 있는 거대한 리콜라 막대 사탕.
 동물들이 모이도록 소금을 휘젓는 것처럼 훑아대는 사막. 위에서 내려다 보면,
 막대 사탕에 붙어 있는 인간의 생물군을 볼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리콜라
 향이 가득한 그들에 가서 마침내 부풀은 혀를 뺀어 살짝 거칠고 신맛이 나는
 표면에 닿기 위해 줄의 가장 앞에 서고 싶었던 순수한 욕망. 핥는 데 허용된
 시간은 최대 2분이며, 그런 뒤엔 마치 1937년 10월 레닌의 영묘를 방문한
 선각자와 같이 추억을 가득 안고 돌아간다.

리콜라 사(Ricola Co.)는 리콜라 막대 사탕에 부착된 모든 DNA가 자사의
 자산이며, 영광스러운 포스트-휴머니티를 향해 나아가는 인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태평양 서부의 리콜라 토템. 프리슬란트에서 리콜라를 빨아먹는 풀.
 터키의 리콜라 자두, 리콜라 섹스 토이. 이 모든 것은 ‘Gago’라는 로고가
 새겨진 트럭이 뉴욕의 파크 애비뉴를 따라 거대한 리콜라 막대 사탕 12개를
 내려 놓은 무척 추운 어느 밤에 시작되었다. 슬로건은 이랬다. “시민들이 할을
 수 있도록.” 블룸버그와 피부색이 덜 어두운 정치인들은 단결의 정신으로 함께
 막대 사탕을 할았다. 분열되지 않고, 단결하여, 우리는 할음으로써 도래하였다.
 우리는 서로 미생물을 공유했고, 할은 자리에서 DNA를 재조합했고, 비둘기
 (pigeon)가 아니라 세균 분해 바이러스(phage)를 먹였다(그나저나 이걸
 훌륭한 슬로건이다!). 파티 후 이뤄지는 거친 할기. 노숙인을 그리고 노숙인과
 함께 할기. 부자와 가난한 이들이 할기에 동참한다. 환멸을 느낀 조나스
 브라더스의 할기. 패션 위크의 할기 촬영. 여기저기 침을 질질 흘리는
 리콜라 사탕이 있다. 리콜라를 둘러싼 라이벌 관계. 가짜 리콜라 알사탕이
 비밀리에 판매된다. 헤센에는 리콜라 재활용 공장이 들어선다. 경쟁이
 일어난다. 펜타닐을 더한 스탠튼 아일랜드산 리콜라 vs. NAD+를 첨가한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산 리콜라. 퍼스에서 벌어지는 리콜라 환락 파티.
 리콜라에 달라붙어 완보동물처럼 바싹 말라붙은 토착민들.
 리콜라 사탕 손잡이에 붙은, 테베레 강 건너에서 온 수천 년 묵은 포자들.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연못 주변의 밝은 곳. 소용돌이 치는 상어.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상어들을 지키도록 태어난 대리 두뇌 수호인의 손자와
 손녀들, 빌어먹을 그 녀석들을 생각한다. 완벽한 인생. 완벽하게 보호된 인생.
 사회보장. 일 주일에 한 번 제공되는 무료 음식과 NAD+. 평생 보장되는
 무료 WIBE 접속권.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그 시작은 알토스 랩스였다. 그들은 첫 번째 연못을 지었고 이를 아마존
 델타라고 불렀다. 불멸의 서적 판매인이 될 가능성을 참을 수 없었던
 드레스덴 출신의 누군가가 여기에 폭격을 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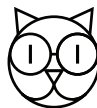
다음은 모두 알고 있는 그대로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저자 소개

알렉산더 타라코프스키는 옛 소비에트 연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 뉴욕 록펠러 대학교에서 교수 겸 연구소장으로 일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후성유전학으로, 이는 생명체가 새로 획득한 특성을 어떻게 유도하고 전파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다.



편집: 잉고 니어만

편집: 로잔나 맥래프린

한국어 번역: 박재용

일러스트레이션: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한국어판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 2024, 잉고 니어만, 에바 파브레가스 & 와일드 퍼블리싱

스위스 바젤 응용과학대학교(HGK Basel FHNW) 예술 젠더 자연 연구소(Institute Art Gender Nature) 소속 기관